창간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승리신문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871호 The Seungni Shinmun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인공지능(AI) 열풍과 동향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05년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2029년에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고, 2045년에는 기계가 인류를 넘어서는 순간, 즉 '특이점'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지난해 11월 30일에 선보인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은 3.5버전으로 여기서 사용한 인공신경망의 숫자는 1,750억 개라고 한다. 그리고 조만간에 100조 개의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챗GPT 4.0버전이 나올 것이라 한다. 그렇게 되면 챗GPT 4.0은 1000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뉴런)가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를 통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인간의 뇌와 대등한 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100조 개의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챗GPT 4.0버전이 올해 나온다면, 미래학자 커즈와일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춘 컴퓨터가 2029년에 등장할 것이다"고 예측한 것보다 6년이나 앞당기게 된다. 이러한 흐름이 인류 문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신세계로 인도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챗GPT 열풍

2016년 3월에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한국의 프로 기사 이세돌 九단과의 바둑 대국은 기계와 인간의 대결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으로 구글이 그 동안 투자해온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력을 입증함으로써, 알파고의 대국 기간 동안 구글 시가총액이 58조원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인공지능 알파고에 최고의 프로바둑기사의 패배는 관전하던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후 6년이 지나서 오픈AI가 개발한 챗GPT를 2022년 11월 30일 공개했는데, 공개 단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챗GPT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함께 나누는 서비스로,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 작성, 번역, 노래 작사·작곡,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AI와는 확연이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투자은행 UBS는 2023년 2월 1일 보고서를 통해 챗GPT가 2023년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MAU는 월 단위로 한 번이라도 접속한 사람 수로, 1억 명 돌파는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한 지 단 2개월 만에 나온 기록이다. 또 이 기록은 다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UBS 보고서에 따르면 1억 MAU 달성에 든 기간은 ▷우버 70개월 ▷스포티파이 55개월 ▷인스타그램 30개월 ▷틱톡 9개월이었다.

생성 AI와 결합한 검색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 본격화

특히 현재 글로벌 검색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2022년 말 영국 《인디펜던트》는 'Google is done(구글은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챗GPT로 대표되는 대화형 인공지능 검색이 구글을 대체할 수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위기감이 높아진 구글은 2023년 2월 6일 챗GPT 대항마로 대화형 AI 서비스 '바드(Bard)' 출시를 공식화했다. 그런데 다음 날인 2월 7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검색 엔진 빙(Bing)에 챗GPT 기반 언어모델을 장착했다고 발표하면서 생성 AI와 결합한 검색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출처: NAVER 시사상식사전 'ChatGPT(챗지피티)']

챗GPT는 구글의 '알파고'를 능가하는,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다

한편 네이버가 GPT·클라우드·스마트시티 등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증권가는 특히 네이버가 상반기 공개할 자체 인공지능(AI) 기반 '서치(검색) GPT' 서비스에 주목한다. 서치 GPT는 한국어 기반 초거대 AI 플랫폼인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고품질 검색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했다. 네이버는 미국 오픈AI가 만든 '챗GPT'의 단점인 신뢰성과 최신성 부족, 번역 문제 등을 해결해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 등과 '챗GPT 경쟁'을 본격화하면 기업가치 재평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본다. [서울경제 "네이버 'AI·쇼핑' 두 축으로 최대실적 행진 이어간다" 2023. 02. 19.]

특이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ANI,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과 강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리고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컨대 IBM에서 개발한 딥 블루(Deep Blue; 체스 게임컴퓨터)는 약인공지능에 속한다. 이런 약인공지능(ANI)은 인간의 자의식과 같은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명령받은 일만을 수행함으로 위험요소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세돌 9단과 대결한 알파고 역시 일반적으로 약인공지능의 범주에 넣고 있지만, 사실은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강인공지능에 가깝다고 일컬어진다. 강인공지능(AGI)은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며,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갖거나 그 이상의 종합적인 지적능력을 구사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여 명령받지 않은 일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행하고 심지어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가오는 2040년이 과학자들의 통계조사에 따른 강인공지능 출현의 중앙치 연도수이다. 일단 강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 지능이 폭발적으로 점프하기 때문에 강인공지능에서 초인공지능으로 전환 즉 특이점은 몇 시간 또는 수일(數日) 만에 아주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수개월 또는 수년 만에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은 근거로 특이점의 시기를 2045년으로 잡는다. 제임스 배럿(James Barrat)은 그의 저서 『파이널 인벤션』에서 "2045년 초인공지능(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이 실현될 것이며, 이 초인공지능이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경고한다.

영국의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인공지능(AI) 로봇이 인류보다 빠르게 진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AI의 반란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나중에는 인공지능(AI)의 긍정적인 측면을 호킹 박사가 언급했는데, "AI는 산업화로 파괴된 자연을 복구하거나 가난과 질병을 뿌리 뽑는 등 삶의 모든 면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간이 AI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것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그는 "AI가 자유 의지를 갖게 되는 경지에 이르면 강력한 무기가 되거나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선 영성을 키워나가야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와 같은 낙관론자는 나노기술을 가진 초인공지능이 인간의 노화를 막거나 젊어지게 할 것이며, 심지어 인간의 의식을 슈퍼컴퓨터로 다운 받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사실 이렇게만 된다면 육체의 죽음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육체를 선택한 다음, 의식을 옮겨 가면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초인공지능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IQ(지능지수)와 EQ(감성지수)를 대폭 강화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을 것이며 우리를 도와 그런 흥미로운 감각적인 세계를 구축함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엘론 머스크(Elon Musk)는 미국 MIT 항공우주공학과가 주최한 100주년 심포지엄에서 강연을 맡아 '인공지능 연구는 우리가 악마를 소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인공지능은 핵무기보다 위험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렇게 2045년이면 초인공지능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특이점에 도달할 것이고 모든 질병과 노화를 정복하고 죽음을 극복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과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으로 양분됨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의 미래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역사가 전개될 확률이 높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선 영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앞으로는 영적인 인물이 세상을 주도하게 된다. 물질적 성공이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자비와 사랑, 화합과 공존 같은 영적인 가치가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물질문명의 시대를 지나 영성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https://blog.naver.com/hosabi55/222915060845] *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52〉

"하나님의 불은 타는 불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원래 불덩이였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중심이 바로 불덩어리이다. 이것은 화산이 폭발하여 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구 땅속에는 불덩어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구 중앙에 불덩어리가 있는데도 왜 타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지구 속에 있는 불이 타는 성질의 불이라면 흙도 타고, 돌도 타고, 산도 타고, 지구상의 바닷물도 다 말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불은 타는 불이 아니다. 소멸시키고 태우는 불이 아니요 생명의 불,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화산이 터져서 지구 속에 있던 불덩이가 밖으로 나오면 타는 불로 변한다. 그 이유와 과정을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이기는 삶

대화하기 싫은 사람

만나면 서로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 대화를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에게까지 자기의 생각을 주입하려 든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괜히 말 상대를 했다는 후회만 남는다.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대화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화 요령을 익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 생각이 존중받기를 원하듯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든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다시는 그와 말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결국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기가 남보다 좀 더 안다고 거들먹거리며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왠지 가까이 하기가 싫다. 가까이 하다가는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꼭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박으로 말을 시작한다.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라며 말을 끊는다. 말을 하던 사람은 자신의 말을 끊으며 부정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충고하는 일에 아주 능숙하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이라며 말을 시작한다. 상대방을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다. 거기에 더하여 명령조의 말투로 말한다. 마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이라도 행사할 것같이 경고한다. 마치 사람을 때려놓고도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고 하며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가 없다. 언어폭력 또한 마찬가지다.

힘들 때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반면에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농담(弄談)이나 하면서 '그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는 식이다. 이런 사람은 진정성(眞情性)이 없어 보인다. 이런 사람과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

또한 동문서답(東問西答)형의 사람이 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이 해야 할 말만 생각하고 있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 일방통행해 버린다. 이래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 대화에 대한 기본 상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경멸하는 듯한 눈빛이나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사람도 대화하기 싫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대개 습관적으로 반말을 사용한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반말이다. 마치 '나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야!'라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속마음을 털어놓더라도 흠잡지 않고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의 인생은 정말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정도령 아니면 절대로 풀 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격암유록 신해설 상권 / 하권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리라!!!!

유튜브 진지아롱TV